

주간 테러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'19. 3. 22(금)

지역별 테러 동향

Weekly Terrorism Trends

유럽

- 네덜란드, 파리 동시다발 테러 무기공급 용의자 2명 체포
 - 3.15 AP통신은 네덜란드 경찰이 '15.11월 파리에서 동시다발 테러*에 사용된 무기를 공급한 혐의로 남성 2명을 체포했다고 보도
 - * 파리 공연장 및 축구경기장 등 6곳에서 총기 및 자살폭탄으로 130명의 희생자 발생
- 네덜란드, 중부도시에서 총격사건 발생
 - 3.18 경찰당국은 중부 위트레흐트市 도심의 트램(전차) 안에서 총격사건 발생, 3명 사망·5명이 부상했다고 발표
 - * 용의자인 터키 출신 「괴크만 타느시」 (37세)를 체포하여 테러여부 등 조사 中
- 이탈리아, 뉴질랜드 테러 모방·보복 범죄 우려로 경계강화
 - 3.18 내무부는 뉴질랜드 테러사건의 모방·보복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모스크와 유대교 회당 등 종교시설 및 교도소에 대한 경계를 강화
 - * 3.17 ISIS는 선전매체를 통해 뉴질랜드 테러 보복으로 기독교인에 대한 테러를 선동

미주

- 美, 시리아 주둔 미군 철수계획 수정 검토
 - 3.18 미국 언론은 美 행정부가 '18.12월 발표한 '시리아 주둔 미군 전원 철수 계획'을 수정, 1천명을 잔류시키는 방안을 계획 중이라고 보도
 - * 시리아 북동부 '안전지대' 관할을 두고 유럽 및 터키 등과 합의점未타결로 수정
- 美 의회, 페이스북 등에 테러영상 확산 해명요구
 - 3.19 하원 국토안보위원장은 페이스북·유튜브·MS 등에 정치적 극단주의 유발 콘텐츠 신속 제거 및 뉴질랜드 테러동영상* 확산에 대한 브리핑을 요구
 - * 페이스북은 24시간 안에 150만개의 관련 영상을 제거했으나, 4,000회 이상 재생

아 · 태평양

- 뉴질랜드, 이슬람사원 총격테러로 사상자 발생
 - 3.15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의 이슬람사원 2곳에서 총격테러 발생 (사망 50, 부상 50), 경찰은 호주 국적의 「브렌턴 테런트」(28세)를 검거
 - * 테러범은 범행前 인터넷에 유색·他종교 이민자들에 대한 보복 등의 선언문을 게시
- 파키스탄, 열차 대상 폭탄테러 발생
 - 3.17 남서부 발루치스탄州에서 여객열차를 겨냥한 급조폭발물 공격으로 객차 5량이 탈선하는 사고 발생, 최소 4명이 사망하고 10명 부상
- 中, 신장에서 5년간 테러범 1만3천명 검거
 - 3.18 AP통신은 중국 당국이 신장 위구르 자치구에서 1,588개의 테러 조직 분쇄 및 테러범 1만3천명을 검거하였다고 보도

중 동

- 이라크, 벨기에 출신 ISIS 조직원에 ‘사형’ 선고
 - 3.18 현지언론은 이라크 법원이 벨기에 국적의 FTF 「알마르초히」(23세)에 테러조직 가담 및 테러 혐의로 사형을 선고했다고 보도
 - * 이라크 대통령, 3. 7 FTF들이 자국法에 따라 재판을 받고 사형이 선고될 수 있다고 언급
- 시리아, 미국 대상 자폭테러 용의자 검거
 - 3.19 시리아민주군 「무스타프」대변인은 올해 1월 만비즈市에서 벌어진 美軍 등 대상 자폭테러 공격(미군 4명 포함 19명 사망) 용의자 일행을 체포했다고 발표

예멘 사나 소재 모스크 연쇄 자살폭탄테러

- '15.3.20 예멘 수도 사나의 이슬람사원 2곳에서 연쇄 자살폭탄 공격으로 최소 140명 사망·350명 부상한 예멘 역사상 최악의 테러가 발생



- 테러범 4명(2인 1조)이 사나 도심의 사원 2곳에서 금요일 낮 예배중인 신자들을 대상으로 자살폭탄 테러를 감행
- 두 사원은 시아파 후티 반군의 무장대원들과 무슬림 지지세력들이 이용하는 곳이었으며, 수니파인 알카에다 아라비아반도지부(AQAP)와 시아파인 후티 반군이 수개월째 전투중으로
 - 테러 직후 후티 반군 측은 알카에다 소행이라고 주장하였으나, 알카에다 측은 사원·시장에 대한 공격을 금지했다면서 테러를 부인
- 한편, ISIS 예멘지부를 자처한 조직이 온라인 성명을 통해 “시아파의 소굴에서 5명이 성스러운 작전을 수행했다”고 발표했으나, 美 당국은 同 테러와 ISIS 연관 징후는 없다고 언급

< 후티 반군(AI Houthi Rebel) >

- (결성) 예멘 북부 사다지역에 대한 차별 타파와 자치권 확대를 목표로 ‘후세인 바라덴 알 후티’(‘04년 정부군 공격으로 사망)가 ‘04년 결성
 - ※ 테러단체 지정 : ‘14.3월 사우디아라비아
- (연계세력) 이란 정부
- (핵심인물) 압둘 말릭 알 후티(창설자의 동생, 現 지도자)
- (활동지역) 사다·알조프·암란주 등 예멘 북서부지역
- (활동수법) 정부군 및 사우디 주도 수니파 연합군 대상 게릴라전 전개
- (주요테러) ‘05.4 사다주 정부군 공격(280여명 사망), ‘15.8 남부 타이즈시에서 후티 반군과 친정부 세력간 교전 및 사우디 공습으로 주민 80명 사망